

남경필 지사 "수도권 규제 폐지해 국가 경쟁력 키워야"

등록 2017.10.27 11:05:51

【수원=뉴스1】김동식 기자 =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권 규제 폐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.

남 지사는 27일 오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우회 인사말에서 "(정부가) 어제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고 바람직한 방향"이라고 평가했다.



남경필 경기도지사

그러면서 남 지사는 "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도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이지만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 안된다"고 말했다.

그는 "지방분권이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면 국가 경쟁력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"면서 "수도권 규제를 풀어내면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뉴욕, 런던, 북경, 상해와 같은 초강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남 지사는 또 "수도권,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시장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방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를 이뤄내는 윈윈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"고도 했다.

앞서 남 지사는 지난 26일 전남 여수세계엑스포에서 열린 대통령-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"대한민국을 당장 강대국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,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'초강대도시' 육성은 가능하다"며 "그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dsk@newsis.com